

# 계절관리제 시행 5년...남부권 초미세먼지 '감소세'

정부가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위해 계절관리제를 도입한 이후 지난 5년간 남부권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계절적 요인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매년 12월1일부터 이듬해 3월31일까지 평소보다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줄이고 관리해 깨끗한 대기질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2019년 12월부터 시행됐으며, 해당 기간 미세먼지 등의 감소 효과를 보였다.

남부권의 경우 5차(2023년 12월-2024년 3월)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16.5 μg/m<sup>3</sup>로 2019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처음 실시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였다.

앞선 연도별 평균 농도는 1차(2019년 12월-2020년 3월) 19.1 μg/m<sup>3</sup>에서 2차(2020년 12월-2021년 3월) 20.1 μg/m<sup>3</sup>로 소폭 증가했으나, 3차(2021년 12월-2022년 3월) 19.7 μg/m<sup>3</sup>, 4차(2022년 12월-2023년 3월) 19.5 μg/m<sup>3</sup>로 감소세가 도드라졌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농도는 ▲1차 2

## 2019년부터 매년 12월-다음 해 3월까지 집중 단속 남부권 5차 농도 최저...영산강청 "6차째 관리 강화"

4.4 μg/m<sup>3</sup> ▲2차 23.7 μg/m<sup>3</sup> ▲3차 23.2 μg/m<sup>3</sup> ▲4차 24.6 μg/m<sup>3</sup> ▲5차 21.0 μg/m<sup>3</sup>였다. 남부권의 초미세먼지 총일수(15 μg/m<sup>3</sup> 이하)는 ▲1차 49일 ▲2차 47일 ▲3차 54일 ▲4차 49일 ▲5차 68일로 지난해는 4차 대비 19일 늘었다. 전국은 ▲1차 28일 ▲2차 35일 ▲3차 40일 ▲4차 31일 ▲5차 47일이었다.

이에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4차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과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심의해 확정했다.

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은 2024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이며

주요 과제로 수송·산업발전 부문 핵심 배출원 감축·관리가 선정됐다.

이를 위해 수송 부문에서는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확대 ▲건설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선박·항만 미세먼지 감축 등을, 산업발전 부문에서는 ▲대형사업장 자발적 감축 ▲석탄발전 가동 축소 등을 실천하기로 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도 해당 기간 동안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2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축 실적을 관리하고 ▲불법 소각 예방을 위한 신고 상황실 운영 ▲

우심지역 공동단속반 및 이동측정차량·측정용 드론 등 첨단 감시장비를 통해 불법 배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사업장 배출시설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김영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저감에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 내 사업장, 공공기관, 지역민들도 모두 미세먼지 저감 생활실천 행동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주성학기자

## 박군택 "선거비용 초과지출은 황당한 실수"

### 회계책임자 첫 재판서 변호인 전해...다음 기일 증인으로 출석 재판부, '선거법 위반' 정준호·안도걸 의원 '집중심리'로 속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 과정에서 회계책임자의 선거비용 초과 지출로 적위 상실 기로에 선 더불어민주당 박군택 의원(광주 광산갑)이 변호인을 통해 "황당한 실수"라는 입장을 전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의원의 회계책임자 A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 씨는 박 의원의 선거 과정에서 법으로 정해진 비용보다 2천800만원가량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선 공판 준비기일에서 초과 지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과다 사용 금액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A 씨는 이날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는 초과비용이 얼마로 인정되느냐에 따라 형량도 달라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A 씨 측이 증거모두를 인정함에 따라 관련 조사를 마친 재판부는 실제 과다지출액이 얼마인지 따져볼 계획이다.

또 A 씨 측이 요청한 박 의원을 다음 달 20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A 씨 측은 "자신의 신분과 관련된 이 사건의 '실수가 왜 벌어졌는지'에 대해 설명하겠다"는 박 의원의 입장을 전했다.

박 의원의 이러한 입장 표명은 공직선거법 상 A 씨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판결 받으면 당선이 무효되기에 적극적으로 변론하며 형량을 최대한 줄이려는 취지로 보인다. /안재영기자

같은 재판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과 그의 선거캠프 관계자 2명에 대한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정 의원과 공모해 불법 전화홍보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선거캠프 관계자 2명이 증거 대부분 동의한 것과 달리 정 의원은 부동의의 함에 따라 재판부는 다수의 증인을 신문하게 됐다.

이에 재판부는 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을) 의원의 재판과 마찬가지로 다음 해 1월을 '집중심리' 기한으로 정하고 휴정기를 제외한 나머지 주마다 최소 하루씩 재판을 잡아 종일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수의 공선법 재판을 받고 있는 형사12부는 앞서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면 선거법상 강행규정인 1심 6개월 이내 선고를 최대한 지키기 위해 신속한 재판을 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안재영기자

## "절도 미수" 30대 경찰 눈썰미에 '마약 전달책' 탄로

### 광주 남부경찰, 구속영장 발부받아

절도 미수 사실을 인정하고 체포되던 피의자의 정체가 경찰의 예리한 눈썰미에 탄로났다.

27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30대)씨를 구속, 조사 중이다.

A 씨는 지난 20일 오후 8시께 남구 월산동에 있는 주택가 등에서 소분 포장된

필로폰을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일명 '던지기 수법'의 전달책으로 활동하던 A 씨는 모르는 사람이 원룸 건물에 들어왔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과 마주한 A 씨는 물건을 훔치러 왔다가 절도 미수를 주장하며 순순히 체포에 응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은 체포 현장 근처에서 A 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가방을 발견했는데, 이 안에는 1g

단위로 소분된 필로폰이 들어 있었다.

이에 대해 추궁하자 A 씨는 마약 전달책임을 자백했고, 경찰은 그의 숙소에서 551g의 필로폰을 추가로 발견, 압수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발부받았다. 또 경찰은 A 씨가 마약을 입수한 경위 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주성학기자

## 광주지방변호사회장 선거 하재욱·김철수 출마...내달 투표



제58대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과 감사 선출을 위한 입후보자 등록이 마무리됐다.

27일 광주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회장 후보자로 2명, 감사 후보자로 4명이 출마표를 던졌다.

회장 후보는 하재욱(연수원 30기) 제1부회장과 김철수(변시 1회) 공보이시다. 서울대를 졸업한 하 부회장은 12년간 검사로 재직하다 지난 2016년부터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전남대를 나온 김 변호사는 5년간 기자 생활을 하다 지난 2012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감사 후보자는 장은백(변시 1회)·송지현(변시 1회)·정철진(변시 1회)·권오성(연수원 30기) 변호사로 총 2명을 선출한다.

이번 선거에선 변호사 회원들의 투표 편의성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처음으로 모바일 전자투표 방식이 도입된다.

선거권은 선거일인 다음 달 9일로부터 15일 전까지 광주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회원에게 주어진다. 이번 선거의 선거인원은 총 614명이다.

광주지방변호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가 2004년 이후 20여년만에 치러지는 경선인 만큼 공정하고 엄격한 관리·감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안재영기자



"사랑의 온도를 올려주세요" 연말연시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희망 2025 나눔 캠페인 사랑의 온도탑'이 27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 설치됐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 캠페인은 내년 1월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이어진다. /김애리기자

### 누구나 쉽게 바르는 황토 벽지

# 새집증후군 완벽차단!!

## 살아 숨쉬는 고어텍스 특허공법 천연황토 코팅제!!

▶ 용도  
어린이집·유치원·한옥 내·외부·방바닥·전원주택·경로당·아파트·펜션·찜질방·카페·휴집  
외벽·독채·양어장·물탱크·기타 인테리어를 요하는 곳  
비가 오면 축축하거나 물이새어 곰팡이 생기는 모든 곳  
기존 황토미장된 곳이나 도배지를 뜯지않고 위에 시공을 요하는 모든 곳  
비염으로 고생하는 어린이방이나 새집증후군 완벽차단!!

▶ 친환경성  
천연황토, 게르마늄, 솔잎, 편백나무, 약쑥, 참숯, 은행잎등 건강에 좋은 재료를 염색하여 고분말로 만들어 술향기나는 친환경 웰빙 제품입니다.

▶ 색도조절제 화이트(600g) : 원하는 색상 조절가능

**저가 황토 제품과 비교 절대 불가!!**

▲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

시공에 검증 받지 않은 방수제품들이 난무하여 소비자들을 현혹하여 판매 및 시공하는 피해사례가 있다고 있습니다. 드림코리아는 특허 인증 품질 보증 업체입니다.

전화 문의시 관련 책자를 보내 드립니다.  
(제품구입시 시외 지역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드림코리아  
DREAM KOREA

전국 대리점 및 판매점 모집(무담보, 무보증)  
문의 : 080-362-7788  
www.dreamkorea.biz